

“고향팀서 우승하니 울컥... ‘V12’ 향해 뛰겠다”

KIA 김기태 감독·양현종 선수 ‘V11’ 소회

KIA 타이거즈의 ‘V11’을 이끈 김기태 감독과 양현종은 아직도 ‘우승’이라는 단어가 울컥하다.

자신이 태어나고 야구 선수의 꿈을 키운 고향, 광주를 대표하는 타이거즈 선수로서 만든 우승이 더 의미가 있는 두 사람이다.

특히 김기태 감독의 감동은 더 컸다. 김 감독은 서림초-충장중-광주일고를 거쳐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좌타자로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우승 반지’를 꺼본 적이 없었다.

고향팀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서 1991년 쌍방울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그는 삼성-SK를 거쳐 지난 2005년 방망이를 내려놓을 때까지 우승 무대를 밟지 못했다.

정규시즌 우승이 확정된 뒤에 눈물을 글썽했던 김 감독은 한국시리즈 우승 자리에서는 아예 눈물을 펴고 쏟았다. ‘상남자’로 통하는 김 감독은 “눈물이 아니었다”고 속스러워하지만, 그의 눈물에는 지난 야구 세월이 담겨있었다.

김 감독은 13일 한국시리즈 MVP 양현종, 허영택 단장과 광주일보를 방문해 우승 소감을 말했다.

김 감독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기분이 좋았다. 운 것은 아니었다”며 웃음을 터트렸다.

그는 “고향에서 생애 처음으로 우승이란 걸 해냈다. 팬들의 응원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우승하고 나서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기뻐해 주신다”며 고향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고향팀 우승 감독이 되어 광주일보를 방문한 것도 그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광주일고 시절 김 감독은 대한야구협회 부회장 등을 맡아 광주·전남지역 야구발전의 큰 공로를 세운 고(故) 김종태 전 광주일보 회장의 종이를 받았다. 당시 광주일보가 위촉했던 전일빌딩도 자주 찾곤 했다.

김 감독은 “회장님 기억이 생생하다. 지역 야구 발전에 큰 역할을 하셨다. 광주일보에 오니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많이 난다”고 옛 추억을 돌아봤다.

학강초-동성중-동성고 ‘V10’ 막내·조연 8년만에 20승 투수·MVP 대투수 우뚝 고향서 환대 받으니 즐거워 지금 마음 잊지 않고 노력할 것

바쁘다. 부모님이 매일 우승턱을 쓰신다고 한다. 나도 바쁘다. 누나가 광주은행에 다니는데 회사 행사에 꼭 한 번만 나와달라고 해서 나가야 한다”고 웃었다.

그는 또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지금 마음 잊지 않고 또 다른 우승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지난 2009년 V10의 현장에서 환호했던

양현종이지만 당시에는 선발진의 막내로 조연이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올 시즌 그는 20승 투수가 되어 정규시즌은 물론 한국시리즈 MVP자리에 우뚝 섰다.

양현종은 “아직도 꿈만 같고 좋다. 다들 알아봐 주시고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신다. 내가 태어난 고향에서 그런 대우를 받는 게 즐겁고 감격스럽다. 덕분에 가족들도



김기태 감독

서림초-충장중-광주일고 고향팀 외면...쌍방울서 시작 좌타자 첫 31홈런 시대 풍미 프로 14년간 우승경험 없어故 김종태 전 광주일보 회장 종예받던 기억 생생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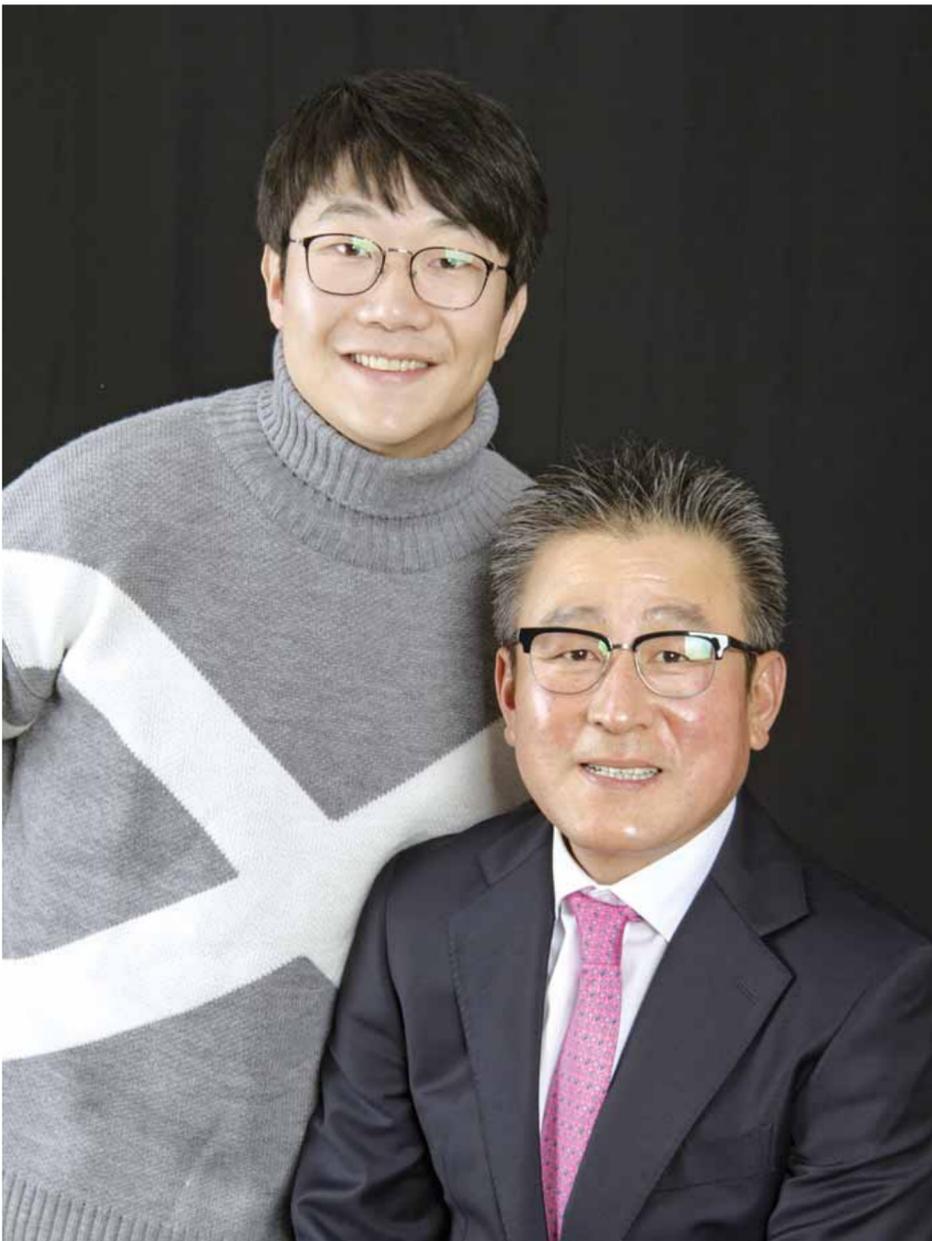
양현종 선수

학강초-동성중-동성고 ‘V10’ 막내·조연 8년만에 20승 투수·MVP 대투수 우뚝 고향서 환대 받으니 즐거워 지금 마음 잊지 않고 노력할 것

바쁘다. 부모님이 매일 우승턱을 쓰신다고 한다. 나도 바쁘다. 누나가 광주은행에 다니는데 회사 행사에 꼭 한 번만 나와달라고 해서 나가야 한다”고 웃었다.

그는 또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지금 마음 잊지 않고 또 다른 우승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 김기태 감독(오른쪽)과 양현종이 13일 광주일보 본사 스튜디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황재균 kt 유니폼 4년 88억 계약

kt wiz가 메이저리그를 경험하고 온 내야수 황재균(30)을 자유계약선수(F.A)로 영입했다.

kt는 13일 황재균과 협상을 마무리하고 4년 총액 88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 44억원, 연봉 총액 44억원이다.

황재균은 2006년 2차 3라운드로 현대 유니콘스(넥센 히어로즈 전신)에 입단했고, 2010년 롯데 자이언츠로 이적하면서 전성기를 맞았다.

2016년 타율 0.335, 27홈런, 113타점, 97득점으로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호타준족의 상징인 20홈런-20도루 클럽에도 가입했다. 이를 발판으로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계약해 메이저리그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타율 0.154, 홈런 1개, 5타점 기록을 남겼다.

황재균은 “프로 데뷔했던 현대 유니콘스의 연고지였던 수원에서 다시 뛰게 되니 초심으로 돌아간 느낌이다”며 “1년 만에 KBO리그에 복귀하기 때문에 설레기도 하고 책임감도 크게 느낀다”고 말했다.

박성현 ‘1주 천하’

女골프 순위 1주일만에 2위로 평산산 첫 1위·유소연 3위

박성현이 여자골프 세계 1위 자리를 1주 만에 내주게 됐다.

박성현은 13일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중국 평산산에 밀려 2위로 내려앉았다. 유소연도 2위에서 3위로 내려갔다.

평산산은 지난 11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블루베이 대회에서 우승하며 중국 선수 가운데 처음으로 골프 세계랭킹 1위에 등극했다. 이 대회에서 박성현은 공동 3위에 머물렀다.

지난주까지 박성현, 유소연에 이어 3위이던 평산산은 토모 재팬 클래식에서 이어 2주 연속 우승하며 순위를 끌어올렸다. 이번 시즌 3승, LPGA 투어 통산 9승을 거뒀다.

그러나 평산산과 박성현의 랭킹 포인트 각각 8.46점, 8.44점으로 간격이 0.02점에 불과하고 박성현과 유소연도 0.01점 차이여서 오는 16일 개막하는 시즌 마지막 대회인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결과에 따라 또다시 랭킹이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

쇼트트랙 4차 월드컵

마지막 ‘평창 모의고사’ 16~19일 서울서

쇼트트랙 대표팀이 16~19일 서울 목동실내빙상장에서 열리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4차 월드컵에 출전한다.

이번 4차 월드컵은 평창올림픽의 출전권이 달린 마지막 대회다. 1~4차 월드컵 가운데 성적이 좋은 3개 대회 성적을 합산해 랭킹을 매긴 후 남녀 500m와 1,000m는 32장, 1,500m는 36장의 출전권을 나눠준다. 한 국가에서 종목별로 최대 3명까지만 출전할 수 있다.

1~3차 월드컵에서 전체 24개 금메달 중 절반인 12개를 휩쓸고 은메달과 동메달도 7개씩 차지한 우리나라는 이미 전 종목에서 최대치의 티켓을 사실상 확보했다.

따라서 이번 대회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실전 기량을 점검하고 계주 등에서 호흡을 맞추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대투수 별명 부담되지만 기분 좋다”

‘V11’ 영상 다시 보며 ‘내가 했구나’ 신기하면서 뿌듯

양현종 선수 질문 있어요

‘대투수’라는 애칭에 미소를 짓던 KIA 타이거즈 양현종은 ‘눈물 영상’에는 웃음을 터트렸다.

한국프로야구 사상 첫 ‘통합 MVP’에 등극한 양현종이 13일 광주일보를 찾았다. 양현종은 광주일보 페이스북을 통해 받은 독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웃기도 하고, 진지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이하 광주일보 독자와 함께 한 일문일답.

-우승한 기분이 어떤가요?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민도훈)

▲꿈만 같고, 하이라이트 자주 보는데 볼 때마다 내가 했구나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울컥하기도 하다.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 늦잠도 자보고 싶고, 아끼고하고 놀고도 싶다. 이달 말에 와이프랑 여행 계획 잡았었는데, 여행 가서 줘주고 싶은 마음도 있다.

-대투수라는 별명 마음에 드시나요. (최수진)

▲팀 선수들이 그런 호칭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부담이 많이 되기도 한다. 팬분들 사이에서 그런 별명 들 때마다 기분은 좋다. 선수들 사이에서는 부담은 되는데 팬들이 좋은 별명 지어주셔서 거기에 걸맞게 열심히 하려고 한다.

-영구결번을 목표로 하는 데 어느 정도

의 누적기록을 달성해야 할 것 같은지. (김재진)

▲원손 투수로서 영구결번을 목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영구결번을 받기 위해서 우승을 몇 번 더해야 할 것 같다. 우승할 때 보탬이 된다면 훗날에 그런 대우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신인 때 홈런 맞고 우는 게 카메라에 찍혔는데. (박하울)

▲김태균 형한테 맞았다. 세월이 너무나 지나서, 그때 상대 투수가 (류)현진이 형이었고 나는 20살 신인이었는데 그 게임을 너무 이기고 싶었다. 현진이 형을 한번 이기고 싶었다. 주위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게임이라고 했는데 한번 이겨보고 싶던 상대였다. 결과가 안 좋게 됐는데 스스로 화가 나서 눈물을 보였다. 지금은 좋은 자료 화면으로 남게 된 것 같다. (웃음).

-우승 후 느끼는 광주의 분위기와 시민들의 반응은. (정하영)

▲전보다 두 배 이상 가까이 알아봐 주신다. 감사하다. 우승한 뒤 감사하다는 이야기 많이 해주신다. 이겨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하신다. 나도 그런 이야기들을 때마다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태어난 고향에서 그런 대우를 받는 자체가 즐겁고 감격스럽다.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올 시즌 최고의 시즌을 보냈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2연패 3연패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여울기자 wool@

“어게인 2017’ 세 번째 가을잔치에 집중”

‘TEAM 2020’ 이끄는 허영택 KIA 단장

100만 관중 조기 달성 감사...내년에도 해야죠 김선빈·안치홍 복귀 기다려 투자...전력 집중 외국인·트레이드 운도 따라...모든 게 좋았다

KIA 타이거즈의 ‘V11’은 극적이면서도 이상적인 우승이었다.

위기를 넘고 넘어 175일간의 선두 질주를 정규시즌 우승으로 완성했고, 양현종을 앞세워 ‘다만딩 챔피언’ 투수의 기세를 꺾고 짜릿한 V11을 만들어냈다.

선수들이 될 무대를 만든 감독과 우승팀의 품격을 보인 선수들 그리고 긴 안목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구단,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진 ‘좋은 우승’이다.

KIA는 지난 2015년 ‘TEAM 2020 비전 선포식’을 갖고 중장기 발전 4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야구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한국 프로야구의 미래를 선도하는 구단’이라는 비전 아래 2020년까지 ▲Tomorrow(미래 성장 동력 창출) ▲Excellence(고객 행복 구현) ▲Ability(최고의 경기력 실현) ▲Management(구단 경영 능력 강화)를 실현하겠다고 ‘TEAM 2020’을 이야기했다.

이와 함께 ‘KIA 123+ by 2020’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담은 서브 슬로건도 발표

했다. 2020년까지 ▲100만 관중 돌파 ▲20% 이상의 구단 가치 상승 ▲3번 이상 포스트시즌 진출 ▲문화 통한 야구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구성원 의식 강화라는 목표를 이루겠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2020년이 오기도 전에 KIA는 100만 관중과 우승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했다. 구단의 장기적인 전략과 투자가 일찍 결실을 본 것이다.

2013년 10월 KIA 단장으로 부임해 TEAM 2020을 이끌어 온 허영택 단장은 “감독과 선수들이 잘해줘서 이뤄낸 결과다”고 감사의 뜻을 표한 뒤 “2020년까지라고 해봤는데 너무 조기 달성을 해서 고민 중이었다(웃음). 일단 100만 관중이라는 게 쉬운 것은 아니다. 한 번쯤 더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목표를 다 이룬 것은 아닌 만큼 세 번째 가을 잔치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허 단장은 “수익은 계속 창출할 수 있을 것 같다. 세 번의 포스트 시즌을 목표로 했는데 아직 두 번 밖에 안 했다. 한 번 더 다했다. 내년 한 번 더 ‘어게인 2017’



을 하도록 하겠다. 목표대로 세 번까지(포스트 시즌 진출) 달성된다면 새로운 10개년 계획을 세울 생각이다.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V11’은 ‘적시적소(適時適所)’로도 표현할 수 있다. 전력을 집중할 수 있는 시기에 통 큰 투자를 한 게 우승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허 단장은 “앞뒤가 잘 맞은 한 해였다. 김선빈과 안치홍을 기다렸다가 투자를 했다. 김기태 감독의 (계약)마지막해이기도 했고, 김선빈과 안치홍이 돌아왔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를 했다. 외국인 선수, 트레이드에서도 운이 따랐고 모든 게 다 좋았다”고 2017시즌을 돌아봤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